

百濟 石室墳群內 埋納遺構의 檢討

— 公州 汾江·楮石里 古墳群 資料의 檢討 —

李 南 奭*

目 次

序 言	2. 遺物의 檢討
1. 汾江·楮石里 遺蹟	1) 埋納遺構의 遺物
1) 古墳群現況	2) 石室墳의 遺物
2) 埋納遺構	3. 埋納遺構의 性格
	結 言

序 言

汾江·楮石里 유적은 百濟의 南遷後 도읍지였던 熊津과 泗泚 地域의 中間인 公州 汾江里와 扶餘 楮石里에 걸쳐 자리한 古墳群이다. 이 유적은 1996년 도로 건설을 위한 救濟 調査가 이루어져 無文土器 時代 石棺墓와 原三國期 土壙墓를 비롯하여 多數의 百濟 石室墳이 조사되었다. 백제 석실분에는 南遷 以前으로 편년될 수 있는 橫穴式 石室墳도 있어 백제 고분 전개 양상의 고찰에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고분군내에 개별 고분과 관련시키기 어려운 상태로 유물만 남아 있는 埋納遺構로 분류된 遺蹟도 있다.¹⁾

우리 나라 고대시기 고분은 造營 方式에 따라 형식이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대체로 묘실을 만들고 封墳을 조성하면서 墓室內에 副葬物을 安置한다는 공통성이 발견된다. 그런데 汾江 楮石里 분묘 유적은 고분 조성시 함께 조성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매납유구가 고분과는 독립된 형태로 있는 특이성이 있음에도 비교자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격만이 아니라 共存하는 개별 고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매납유구는 토기로 구성되어 있고, 토기 자체는 대체로 百濟의 屬性을 지닌 것들이다. 그리고 함께 조사된 백제 석실분에서 다량의 토기가 수습되었고, 토기는 고분 형식에 따라 相

* 公州大學校 史學科 教授 兼 博物館長

1) 李南奭, 1997, 『汾江·楮石里 遺蹟』(公州大學校 博物館).

異性이 있다. 아울러 백제 석실분의 概略的 理解²⁾에 기초하면 조사된 석실분뿐만 아니라 이에서 출토된 토기의 고찰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아직은 성격이 불분명한 매납유구의 이해도 추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本考를 마련하였다.

토기는 생활 용구라는 특성이 있으면서, 용도, 지역, 시기에 따라 다양성이 크게 나타나는 유물이기 때문에 속성만을 기초하여 일괄 고찰하기에는 나름의 한계가 있다. 더욱이 百濟土器는 대부분 收拾品 혹은 收集品일뿐, 구체적 출토 정황을 지닌 것이 많지 않다. 이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既往의 百濟土器의 연구는 아직 初步的 段階를 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³⁾ 이와 같이 土器의 屬性이나 資料的 限界를 고려하면 매납유구의 성격을 토기의 특성이나 그 현황만으로 검토하겠다는 意圖가 다소 무리일지도 모른다. 다만 본 汾江·楮石里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器種이 다양하고 양적인 면에서도 비교적 충분하면서, 고분이라는 母集團의 성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토기자료의 한계를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汾江·楮石里 유적 내용을 정리하여 그 정황을 제시한 후에, 매납유구를 소개하겠다. 이어서 매납유구의 출토품인 토기와,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백제 석실분 출토 토기를 살펴 비교 가능한 자료를 선별 검토한 후, 매납유구의 성격을 유추하여 보고자 한다.

1. 汾江·楮石里 遺蹟

1) 古墳群 現況

汾江·楮石里는 公州市 灘川面 汾江里와 扶餘郡 扶餘邑 楮石里의 境界 地域이며, 公州와 扶餘를 연결하는 百濟 大路의 개설을 위해 기초 사업으로 1996년 발굴이 진행되어 본 汾江·楮石里의 고분군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은 80년대부터 百濟古墳으로 알려졌고,⁴⁾ 1990년 扶餘 文化財 研究所가 일부 구역을 발굴 조사한 결과 벽돌로 쌓은 무덤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⁵⁾ 그러나 당시 한정된 구역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된 관계로 전체 유적의 윤곽이나 고분군의 성격은 未確認 상태로 있다가 96년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유적은 무문토기시대 석관묘를 비롯하여 원삼국기의 토광묘 및 백제시대의 석실분 등이 남아 있었다. 조사된 내용은 石棺墓가 8基이고, 土壙墓가 3基이며, 百濟古墳은 모두 46基인데, 石室墳은 32基로 橫穴式, 橫口式, 竪穴式의 類型으로 구분된다. 이외에 백제고분으로 甕

2) 李南奭, 1995. 『百濟石室墳研究』(學研文化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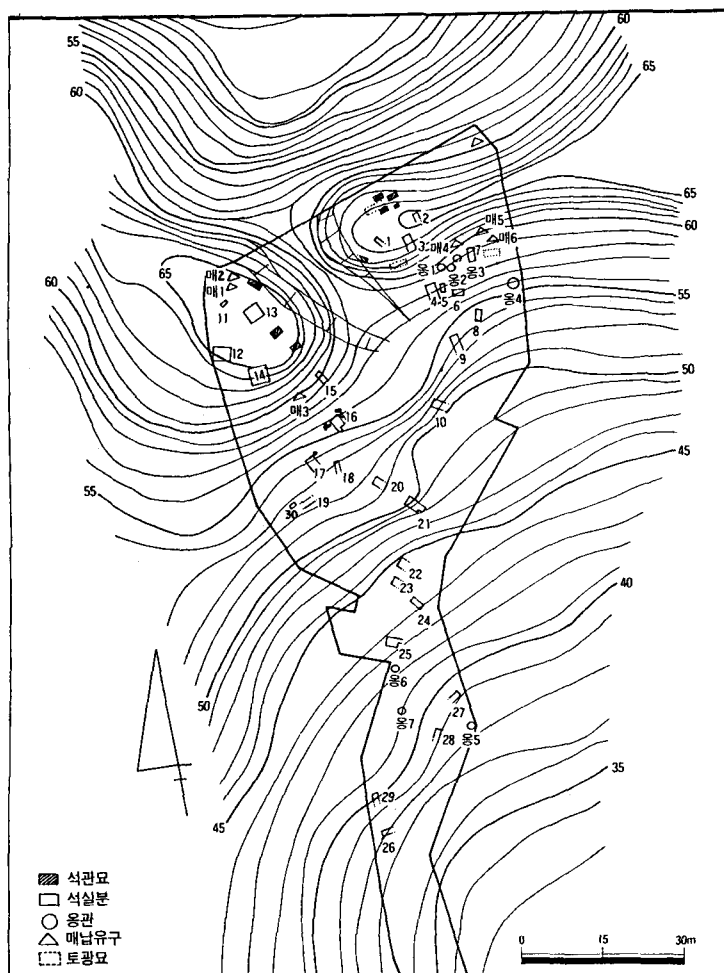
3) 백제 토기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백제개발연구원에서 발행한 『백제 토기 도록』이 있을 뿐이고, 이외는 출토지별, 혹은 기종별 고찰이 중심을 이루고 있을 뿐이다.

4)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8. 『忠南 地域의 文化遺蹟』 3.

5) 扶餘文化財研究所, 1992. 『楮石里 古墳』

棺墓 14기가 있다. 古墳 以外の 遺構는 本考에서 살피고자 하는 埋納遺構가 있을 뿐인데, 이들은 형상을 구체적으로 남긴 것만 대상으로 할 경우 6基가 헤아려 진다. 조사된 고분이나 매납유구는 대부분이 표면 유실과 경작 등으로 말미암아 유구 자체의 파괴는 많지만 도굴 등의 人爲的 피해가 적어 墓室內外의 副葬品이 원상태로 남아 있었다.

古墳群의 個別 遺構 분포현황을 보면, 능선 정상부터 하단까지 넓게 자리하는데 표고 60m의 정상에서 40m의 하단까지 약 20m의 범위에 걸쳐 있다. 물론 분포 범위는 未調査 地域인 左右로 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석관묘 8기는 대체로 능선의 頂上 즉 線上部에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토광묘는 1기가 구릉의 정상 부분에서 석관묘의 사이에 위치하고, 나머지 2기는 남향의 경사면에 조성되었지만 동쪽의 구릉 일정한 범위에 몰려 있다. 백제고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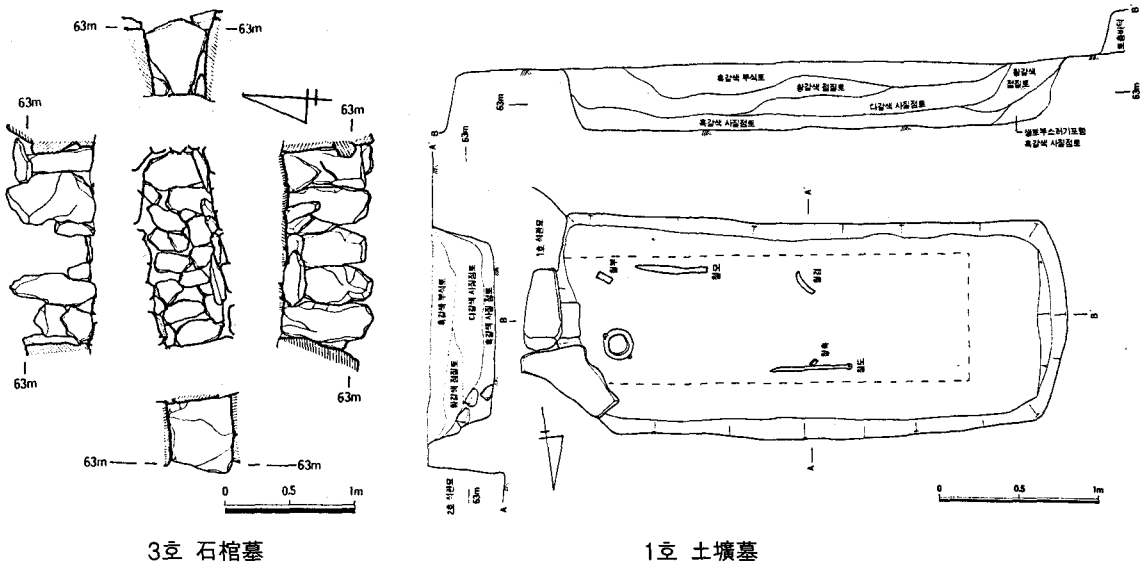


〈汾江·楮石里 古墳群 分布圖〉

석실분과 옹관묘는 조사구역 전체에 散布된 형상이나 정상부를 피하면서 南向面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 옹관묘가 주로 석실분의 주변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석실분도 횡혈식과 수혈식은 인접된 형태로 있는 등의 특징이 있다. 특히 횡혈식 석실분의 경우 12-14호분으로 분류된 3기는 석관묘가 분포되어 있는 정상부에 있는데, 이는 백제 횡혈식 석실분의 일반적 분포 현황과는 차이가 있다. 횡혈식 석실분의 대체적 분포는 시기가 이른, 즉 궁륭식 혹은 원형천정 유형의 것이 구릉의 상단에 있으면서 보다 시기가 늦은 평천정 類型은 구릉의 하단에 자리하여,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順次的으로 造營되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옹관묘는 대부분 석실분의 配葬形態로 있음이 일반적이거나 일부는 독립된 채 분포된 것도 있다.

8기의 석관묘는 한 벽면에 1매석을 사용한 전형적 箱式石棺과 같은 유형은 없다. 모두가 壁石의 구축에서 판석형 석재를 세워서 꾸미는데 數枚를 이어서 사용하였다. 그리고 積石의 형태로 조성한 것도 없다. 석관의 규모도 대체로 120cm내외의 길이로 伸展葬은 어려운 규모이다. 따라서 석관묘의 葬法은 屈葬이나 二次葬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1, 2호로 구분된 석관묘는 석관 덮개로 여러 매의 판석을 덮었지만 덮개들 위를 할석으로 장방형 형태가 되게끔 적석한 형태로 남아 있다. 석관묘는 묘제상으로 數枚式이라는 형식분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으면서 지역적으로 松菊里 類型의 石棺墓와⁶⁾ 상통하는 것이다.

토광묘는 棺, 槨시설의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1호분의 경우 어느 정도 깊이를 유지하고, 부장품도 鐵刀와 鐵矛, 그리고 兩耳付 土器등이 남아 있는 등의 전형적 형상임에도 棺·槨의 線이 구체적이지 않다.



6) 金永培·安承周, 1975. 「扶餘 松菊里 遼寧式銅劍出土 石棺墓」 『百濟文化』 7·8 合輯.

百濟 石室墳은 모두 32기이다. 이 중에서 유물만 수습된 유구 1기를 제외한 나머지 31기는 대략적 구조형상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먼저 31기를 유형별로 보면 횡혈식 석실분이 13기이고, 횡구식 석실분이 6기, 수혈식 석실분이 6기에 성격미상이 6기이다. 다만 수혈식으로 구분된 것중에 일부는 벽면의 한쪽이 완전 제거되어 횡구식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유물만 수습된 1기가 있는데 묘실 평면이 거의 방형에 가까우면서 묘실내에 다량의 棺釘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일단 횡혈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로 보면 분강·저석리 백제고분은 대체로 횡혈식 석실분이 주류를 이루며, 여기에 횡구식이나 수혈식이 함께 포함된 상태이다. 우선 백제 석실분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汾江·楮石里 百濟 石室墳 現況

No.	類 型	墓室(L×W×H)cm	長軸	羨道·入口	바닥	遺物 및 特徵
1	橫口式	101×53 ×62	N-158-S	破壞	生土	
2	橫口式	110×44 ×41		破壞	岩盤	
3	橫穴式	164×103×82	N-11-S	破壞	敷石	鐵片
4	橫穴式	256×115×116	N-7-S	119×74×57	자갈	屍床臺. 土器 7점
5	豎穴式	115×50 ×45	N-18-S		敷石	土器 3점
6	豎穴式	156×54 ×58	N-141-S		탄재	敷石후탄재, 土器 3점
7	橫穴式	263×118×110	N-24-S	51 ×49×44	敷石	屍床臺, 棺釘
8	橫穴式	270×88 ×111	N-11-S	左偏在.	敷石	土器 4점(三足土器 1)
9	橫口式	181×61 ×70	남북		敷石	棺釘
10	橫口式	272×75 ×78		破損,	敷石	棺釘
11	豎穴式	74 ×37 ×39	N-86-S		敷石	단관석사용. 鐵製刀子
12	橫穴式	258×189×86	N-158-S	中央(段)	生土	土器4. 鐵器4
13	橫穴式	256×241×102	N-167-S	中央(段)	生土	土器2. 鐵器 5
14	橫穴式	302×187×56	N-106-S	中央(段)	生土	土器 3. 鐵器
15	橫口式	238×66 ×91	N-170-S		자갈	棺釘
16	橫穴式	250×216×142		左偏在	土器	土器, 鐵器, 甕棺配葬
17	橫穴式	283×196×119		左偏在	敷石	土器, 鐵器, 金銅耳飾
18	?	228×66 ×53	N-16-S	破壞	敷石	土器3. 鐵刀片
19	豎穴式		N-85-S		敷石	土器 1
20	?	188×83 ×82	N-162-S	破壞	生土	
21	橫穴式	262×157×104		右偏在	敷石	棺釘
22	?	135×92 ×95	N-S	破壞	敷石	半破된 것, 棺釘
23	?		N-163-S	破壞	敷石	土器 6점. 鐵斧
24	橫穴式	150×65 ×68	N-151-S	中央	敷石	棺釘
25	橫穴式	262×152×100	N-133-S	右偏在	生土	土器5.

No.	類 型	墓室(L×W×H)cm	長軸	羨道·入口	바닥	遺物 및 特徵
26	?	179×72 ×58	N-130-S		敷石	鐵器
27	豎穴式	254×80 ×28	N-86-S		敷石	鐵器 1. 土器 4
28	豎穴式	152×53 ×31	N-48-S		敷石	土器 5
29	橫穴式	211×124×85	N--S	破壞	敷石	土器. 鐵器
30	?	98 ×74 ×33	N--S			
31	橫口式	72 ×79 ×37	N--S	破壞		

석실분중에서 橫穴式 石室墳은 13基이다. 이중에 7기는 묘실의 평면과 봉괴형상 등으로 미루어 원형천정으로 판단된다. 이외는 조임식을 비롯하여 평천정의 고임식과 수평식도 함께 있다. 이들 횡혈식 석실분은 대체로 남향면에 地下로 墓壙을 構築하고 할석으로 묘실을 구성하였음이 공통적이다. 여기에 묘실의 경우 천정이 원형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방형에 가까운 장방형이나, 이외의 고임식이나 수평식과 같은 평천정 유형은 細長된 長方形이 많다. 묘실 長軸은 공통적으로 傾斜 方向에 맞추어져 있다. 경사의 아래쪽, 즉 남쪽으로 시설된 入口 및 羨道는 甬道식의 경우 초기형으로 볼 수 있는 12-14호 석실분은 중앙에 한단 높게 위치하고, 이외에 左偏在·右偏在가 뒤섞이면서 묘실 바닥과 같은 수평에 위치한다. 여기에 고임식이나 수평식은 연도가 중앙식에 短羨道가 지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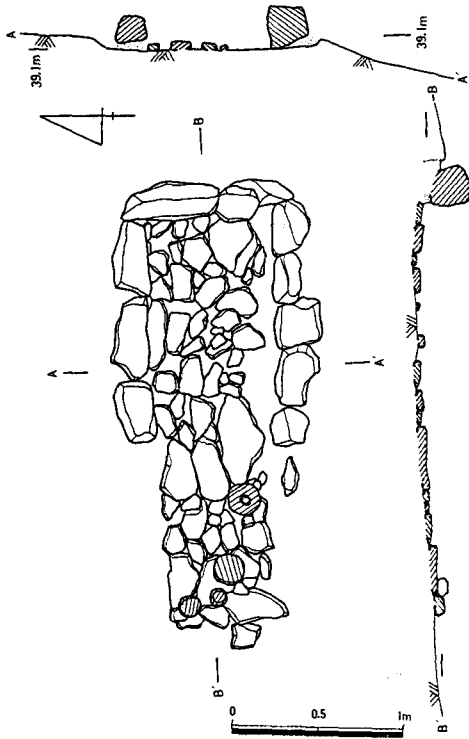
묘실내의 시설은 바닥 敷石이 보편적이거나 生土面을 이용한 것도 있다. 더불어 조임식 유형에서 棺臺가 시설된 것도 있다. 수혈식은 성격이 불분명한 27-28호를 제외한 상단에 있는 것들은 횡혈식 석실분과 인접하여 있으면서 규모도 小型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들은 횡혈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墓制는 수혈식 묘제의 기본적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지하식에 등고선 방향의 長軸, 細長된 長方形 墓室 등이 그러하다.⁷⁾ 그러나 규모가 작게 남아 있는 것은 埋葬者의 나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6호 수혈식 석실분은 바닥에 솟을 깔고 있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횡구식 유형의 석실분은 구조적 특징이나 출토 유물에서 특징을 찾기가 어렵다. 이들은 횡혈식 혹은 수혈식과 混在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묘실의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築造도 매우 조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묘실 입구는 경사의 아래쪽으로 개구되었으면서 積石으로 폐쇄한 것들이다. 여기에 墓室內에 遺物은 거의 없으며 단지 관못만이 일률적으로 수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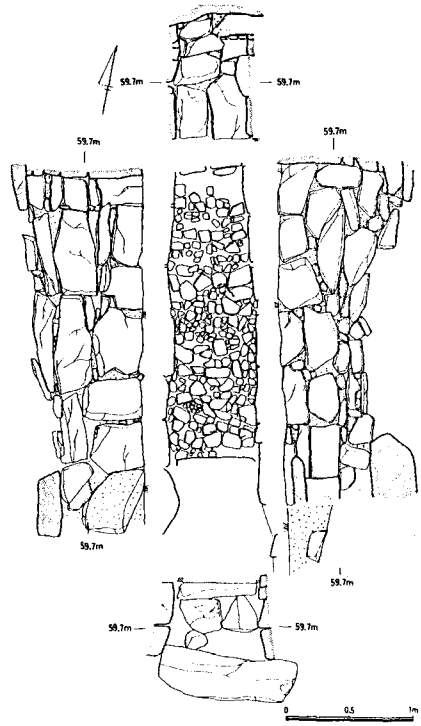
석실분의 副葬品은 甬道식의 횡혈식 묘제에서 풍부하게 나타난다. 특히 묘실의 입구 한쪽에 대형 甕의 安置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형태의 甕은 공주 보통골 고분군의 17호분에서 발견된 바 骨壺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⁸⁾ 같은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지

7) 李南奭, 1994. 「百濟 豎穴式 石室墳 研究」 『百濟論叢』 (百濟文化開發研究院)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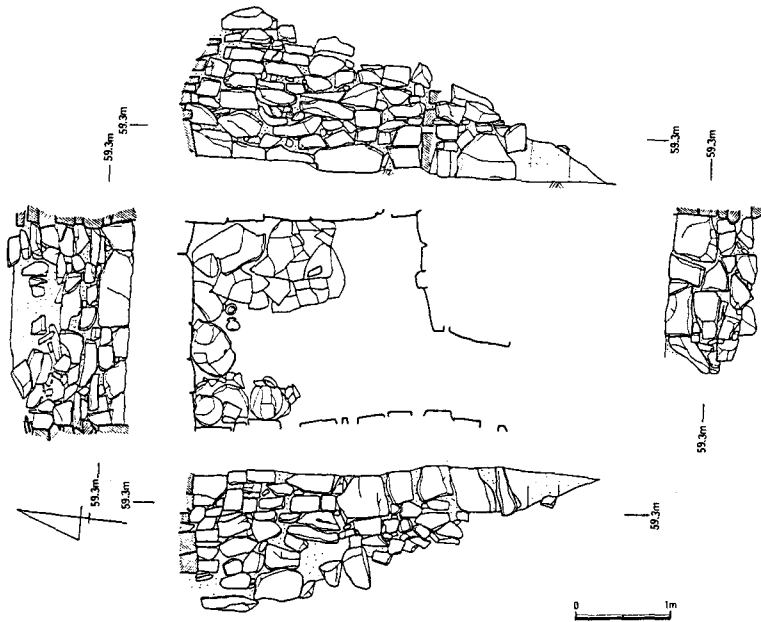
8) 安承周·李南奭, 1991. 『公州 보통골 百濟古墳發掘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竪穴式 石室墳〉



〈横穴式 石室墳〉



〈横穴式 石室墳〉

않을까 여겨진다. 그러나 고임식이나 수평식의 횡혈식 석실분과 횡구식 석실분에서 유물 출토는 매우 빈약하다. 그런데 유물의 부장 환경은 관못 등의 木棺 遺品이 남아 있으면 토기 등의 부장품이 없고, 반면 토기 등의 부장품이 있으면 관못 등의 木棺 遺品이 없는 경우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甕棺墓 14기는 대부분 횡혈식 석실분의 주변에 配葬의 형태로 잔존한다. 7호 횡혈식 석실분 주변에 3기의 옹관묘가 있고, 13호 석실분 곁에 1기, 16호 석실분 주변에 4기, 17호 석실분 곁에 1기가 있다. 이외는 單基로 있는데 대체로 조사구역 외변에 있어 미조사 지역의 고분 잔존 현황을 고려하면 이들도 횡혈식 석실분과 근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석실분 곁에 있는 옹관묘는 석실분 봉분속에 충분히 포함될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면서 수평상으로 석실분의 묘광 어깨선 부분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로 보면 석실분 주변에 있는 옹관묘들은 석실분의 피장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없을 듯하다. 다만 이들은 單甕式과 合口式이 혼재하는가 하면, 부장 유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묘제 형식차를 인정할 수 있다. 석실분과 거리를 두고 독립된 형태로 있는 옹관묘는 大型甕 하나를 사용한 單甕式이 대부분이고, 이들은 地盤에 墓壙을 파고, 여기에 대형의甕을 橫置하면서 입구를 석재로 막았다는 공통성도 있다.

요컨대 汾江·楮石里 遺蹟은 분묘만으로 이루어진 유적으로 무문토기시대의 석관묘를 비롯하여 원삼국기의 토광묘, 그리고 백제시대의 석실분을 비롯한 옹관묘 등으로 구성된 유적이다. 시기별로 무문토기시대에서 백제 말기까지 편년될 수 있는 고분이 있지만, 무문토기시대와 원삼국기, 혹은 원삼국기와 백제시기의 무덤들이 서로 連續性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백제 석실분의 경우 모든 유형과 형식이 망라되면서 분포상에서도 위쪽이 이른 시기의 것, 아래쪽은 늦은 시기의 것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장기간에 걸쳐 持續的으로 造營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埋納遺構

埋納遺構는 형태가 분명한 것이 6기인데, 이들은 獨立되어 위치하면서 瓶型土器와, 壺型土器, 鉢型土器, 소형의 短頸小壺가 세트를 이루면서 여기에 부분적으로 약간의 鐵器가 포함된 채 지하에 埋納된 형태이다. 외형만 보면 유구가 유실되고 유물만 남은 토광묘를 연상케 하나 같은 지역에서 조사된 토광묘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있으면서 시기차도 있어 토광묘와 같은 매장시설과 관련된 副葬品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매납유구는 고분군의 상단 지역, 즉 구릉의 선상부쪽에 주로 자리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호」 매납유구는 13호 석실분의 북단쪽에 있는 것이다. 6호 석관묘가 동쪽 5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기도 하다. 나호 매납유구와 매우 인접된 형태로 있으며, 13호 석실분이 위

치한 구릉의 정상부에 함께 있는 셈이다. 民墓 造成으로 削土된 地반에 쌓인 흙의 20cm정도 깊이에 있었다. 유구는 壺形土器 1점과 瓶形土器 1점, 鉢形土器 1점, 短頸小壺 1점의 土器類와 鐵斧 2점 및 鐵鎌의 鐵製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병형토기와 호형토기, 발형토기를 삼각으로 서로 붙여 정치된 상태로 놓고 발형토기와 호형토기의 사이에 鐵斧가 세운 형태로 끼워져 있다. 그리고 병형토기의 바깥으로 단지형 토기가 口緣을 병형토기로 향한 채 누어져 있다. 이외에 병형토기와 호형토기의 사이에 엷은 형태로 부러져 刃部만 있는 鐵鎌이 올려져 있다. 地盤의 퇴적토를 약간 파서 대강 整地한 후 안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토층에서 유물 안치구를 굴착하였다거나 토광의 형태를 확인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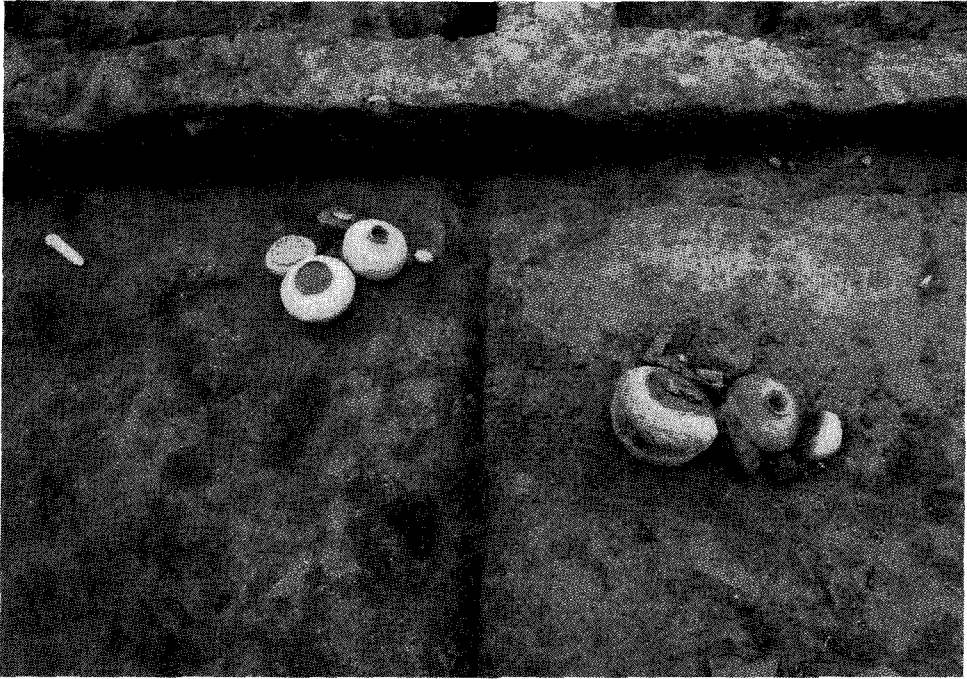
「나호」 매납유구는 「가호」 매납유구보다 한단 낮은 형태로 동쪽으로 약 120cm의 거리에 있어 거의 인접된 지역에 자리한다. 지표하 약 30cm의 깊이에 있으면서 호형토기 1점과 병형토기 1점, 그리고 단지형 토기 1점 및 원형에 가까운 발형토기 1점을 매납한 것으로 器種構成은 가호 매납유구와 동일하다. 그러나 鐵製品은 없고 반면에 紡錘車 1점이 있다. 배치는 4점의 토기를 서로 붙여서 네모지게 定置하고, 병형토기의 곁에 방추차가 있다. 발형토기만 깨진 채 남았을 뿐 나머지는 원상을 간직하고 있다.

「다호」 매납유구는 구릉 남향 사면으로 정상에서 직선거리 약 30m정도 거리에 6m의 표고차가 있는, 경사가 비교적 급한 지역에 자리한다. 이 지역은 풍화가 덜된 암반형 구역에 약간 퇴적토가 있지만 토광 윤곽이나 굴착의 흔적 없이 外反 口緣壺와 直立 口緣壺 2점에 단지형 토기 1점이 매납되어 있는 것이다. 구연호는 이들에서 약 15cm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표면 유실과정에서 이탈된 것으로 보인다.

「라호」 매납유구는 동쪽 구릉의 정상부 동쪽에 있다. 표고는 정상보다 5m정도 낮은 지역이며 남향의 경사지만 완만하고, 유물은 토기 4점이 있다. 그러나 잔존 토기중에 軟質의 발형토기와 또 다른 硬質土器 1점은 대파되었으며, 또 다른 硬質土器는 하단부만 남아 있다. 배치는 크기가 다른 直立 口緣壺 2점을 동서로 두고, 윗부분에 10cm정도 간격을 두고 軟質의 鉢形土器, 남쪽으로 같은 간격을 두고 硬質土器가 있다. 鐵斧는 직립 구연호의 동쪽에, 鐵製品은 깨진 토기의 곁에서 조각으로 수습된다.

「마호」 매납유구는 라호에서 남으로 약 4.5m에 있다. 다른 매납유구와는 약간 다른 형태로 地반토에 파괴된 廣口壺가 절반만 남은 채 노출되었고, 광구호내에 연질의 발형 토기편이 남아 있는 것이다. 廣口壺는 兩耳付壺로 평저에 비교적 소형의 용기이다. 그러나 광구호형상의 토기로 兩耳는 乳頭形 꼭지가 부착된 것이다.

「바호」 매납유구는 조사구역 동쪽 구릉의 정상부 가장 동단에 치우쳐 있다. 장경호와 직립구연의 단경호가 15cm정도의 간격을 두고 2점이 배치된 것이다. 이들 토기에서 약 25cm의 거리를 두고 파괴된 철부 1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 유구도 퇴적토를 대강 정지하고 안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광구호는 長頸를 특징으로 한다.



〈사진〉 가·나호 매납유구 현황

요컨대 埋納遺構로 분류된 이들 유적은 토기 등의 物品을 地下에 묻은 형상으로 남아 있다. 埋納된 물품은 토기가 중심을 이루지만, 鐵斧나 鐵鎌과 같은 鐵製品도 있고, 방추차도 있다. 따라서 이들은 유물만을 볼 경우 土壙墓와 같은 墳墓의 副葬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 지역에 남아 있는 토광묘의 경우 분명한 土壙을 조성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들 매납유구는 지반토를 파서 토광을 조성한 흔적, 즉 굴착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나 시기차라던가 형태 차이는 발견된다. 나아가 이들은 오히려 舊地表로 추정될 수 있는 퇴적토속에 토기 등의 유물이 묻혀 있는데 토기를 한군데에 가지런히 모아서 매납하였기에 墳墓로 보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더불어 가호나 나호 등의 일부 유구는 유물이 원상태로 남았다고 여겨지나, 「마호」의 경우는 流失을 추정할 수 있어 더 많은 遺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2. 遺物의 檢討

매납유구의 내용과 여기에서 수습된 유물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매납유구의 현황이나 수습된 유물만으로 이것이 무엇인가를 판별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매납유구가 고분군내에 잔존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埋葬遺蹟 혹은 매장유적과 관련되었을 것은 분명한데 성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매납유구를 별도의 매장시설로 보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考究된 우리 나라 고대묘제 현황을 고려하고, 여기에 매납유구의 형태를 대비하면, 묘제는 土壙墓나 혹은 火葬墓의 범주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토광묘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극적 대비가 어렵다. 그리고 화장묘도 묘제 자체가 藏骨容器로 소형의 토기가 사용된다거나 혹은 여러 개의 토기를 모아서 지하에 埋納한다는 점에서 매납유구를 화장묘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매납유구의 수습토기에서 장골용기로서 반드시 공반되는 용기 두 종류가 전혀 없고, 오히려 장골 용기로서는 전혀 異質的인 小型土器 혹은 軟質 鉢型土器가 있다. 이들은 장골 용기보다는 백제 분묘의 부장품으로 널리 애용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지만 철기라던가 방추차 등이 함께 埋納되어 이를 화장묘와 같은 매장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들 매납유구는 함께 잔존된 다른 분묘와 관련하여 그 성격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즉, 매납유구는 특별한 시설 없이 토기만으로 이루어진 유구이다. 토기는 器種에서 短頸小壺라던가 瓶形土器, 直立口緣壺, 鉢形土器가 主種을 이루는데, 대체로 百濟土器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더불어 다행히도 함께 조사된 백제 석실분에서 다량의 토기가 수습되었고, 비록 형태적 相似性은 적으나 器種的으로 매납유구 출토품과 相通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매납유구 출토 토기와 석실분 출토 토기를 비교·검토하면 매납유구 이해의 단서가 마련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 埋納遺構의 遺物

매납유구의 유물은 철검과 철부와 같은 철제품, 그리고 나호에서 방추차가 출토된 외엔 나머지는 전부 토기이다. 더불어 토기의 기종도 광구호와 단경소호, 그리고 병형토기, 발형토기, 직립 구연호라는 비교적 단순한 기종 구성을 보이고 있다. 매납유구의 출토유물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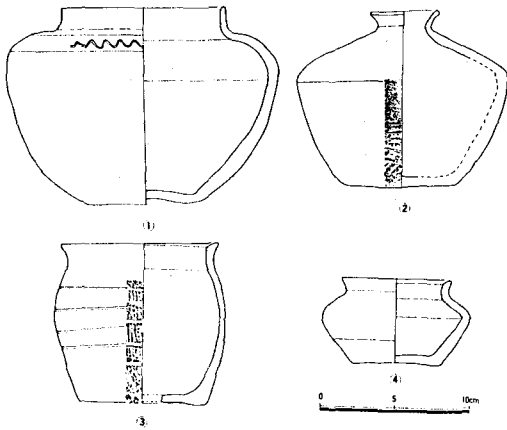
<표 2> 埋納遺構 遺物 現況

구 분	土 器 類					鐵器類		其他
	廣口壺	直立短頸小壺	瓶型	鉢型	直 立口緣壺	外反短頸小壺	鐵鎌	
가호 매납유구		1	1	1	1		1	1
나호 매납유구		1	1	1	1			연질토기·방추차
다호 매납유구		1			1	1		
라호 매납유구		1	1	1	1			1
마호 매납유구	1			1				
바호 매납유구	1	1						1

土器는 廣口壺 2점, 直立口緣과 外反口緣의 短頸小壺 6점, 瓶形土器 3점, 鉢形土器 4점, 그리고 直立口緣壺 4점이 있다. 이들 유물구성을 보면 標識的 백제토기인 三足土器가 없다 든가, 백제 墳墓의 부장품으로 가장 보편적인 蓋杯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점이 특징이고, 나아가 병형토기와 발형토기, 직립 구연호가 표식적 형태로 埋納되었음도 알 수 있다. 기종 별 내용을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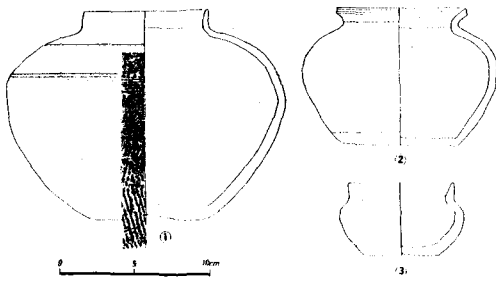
광구호로 「마호」 출토품은 兩耳付壺로, 광구호로 분류하는데 다소 문제가 없지 않지만 넓은 구연을 지니고 있어 일단 광구호로 본 것이다. 平底에 小型 容器인데 瓦質에 가까운 燒成度에 회청색이다. 동체의 절반 정도가 결실되었으며 어깨의 좌우에 유두형의 꼭지가 있다. 구경 14.8cm에 높이 14.5cm, 그리고 底徑이 11.7cm로 큰 구연을 지녔는데 구순이 넓지만 장식은 없다. 「바호」 출토 광구호는 회청색 경질토기로 구경 13.6cm에 높이 18.9cm의 형태에 근거하여 광구호로 분류하였는데 동체에 비해서 매우 긴 長頸를 약간 젖힌 채 크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최대경은 14.9cm이고, 평저의 저경은 6.9cm로 계속된다.

직립구연과 외반구연을 지닌 단경소호는 모두 6점인데 마호 매납유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유구에서는 標識的으로 매납된 器種이다. 「가호」 출토의 소형호는 회청색에 경질토기로, 평저에 어깨 부분이 팽창된 胴體, 약간 외반된 듯한 직립구연에 自然釉가 있다. 문양은 없고, 구경 8.5cm, 높이 5.8cm, 최대경 10cm, 저경 6cm이다. 「나호」 소형호는 平底에 직립구연의 단경호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질로, 퍼진 동체부를 지닌 것으로 구경 8.3cm, 높이 5.9cm, 최대경 11.5cm, 저경 6.8cm이다. 「다호」 출토품 중 외반구연의 小壺는 회청색 경질토기로, 평저에 광견으로 짧은 경부에 外反口緣을 지닌 것이며 구경 8.7cm, 높이 9.4cm, 최대경 13cm, 저경 7.6cm이다. 그리고 直立口緣의 小壺는 소성도가 높은 경질토기로, 평저에 어깨가 팽창된 동체, 그리고 광구의 直立口緣으로 구경 7.1cm에 높이 5cm, 최대경이 8.3cm에 저경이 4.7cm의 매우 작은 용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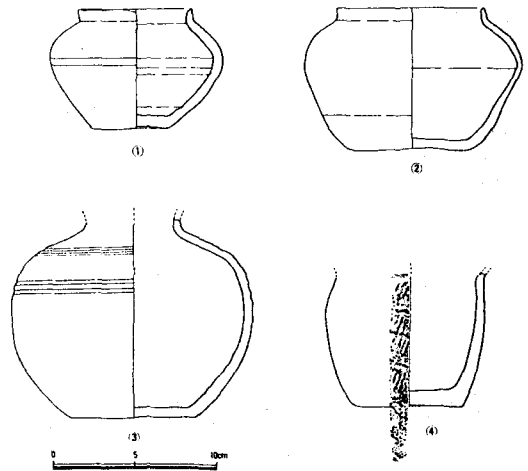


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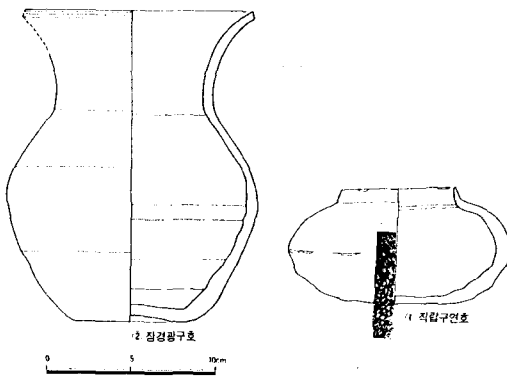
나호



다호



라호



바호

마호

<매남유구 출토 토기 현황>

「라호」小壺는 좁은 평저에 廣肩形의 胴體部를 지닌 것인데 자연유가 있고, 최대경에 2조의 음선을 두어 중앙에 돌대를 표현하였다. 구경 6.9cm, 높이 7.3cm, 최대경 10.5cm, 저경 4.6cm의 크기이다. 「바호」출토품은 경질로 平底이나 圓底에 가깝고, 동체 중간부가 크게 팽창되었으면서 상단에 짧은 직립의 구연을 가진 것이다. 구경 6.7cm, 높이 7.2cm, 최대경 13.2cm, 저경 7cm정도가 측정된다.

병형토기는 「가호」출토품의 경우 회청색 경질로 넓은 동체에 작은 구연이 부착된 평저이다. 평저 바닥에서 器壁을 올리면서 기벽을 曲律없이 수직으로 올리고, 어깨 부분의 꺾임이 각을 이루듯 급격하다. 목이 좁으며 구연도 짧다. 구경 4.6cm, 높이 11.9cm, 최대경 14.4cm, 저경 7.7cm이다. 「나호」병형토기는 흑회색의 경질로 자연유가 있다. 평저에 약간 팽배된 어깨 부분, 그리고 좁은 목이나 口緣의 대부분이 결실되어 있다. 잔존 높이 11.3cm, 최대경 13.8cm, 저경 10cm이다. 「라호」병형토기는 다갈색의 경질토기로 구연부는 결실되었다. 평저에 구형의 동체를 지닌 것인데 동체 중상단에 음선 2줄, 상단에 같은 형태의 음선이 있으나 희미하다. 잔존 높이는 12.2cm, 최대경 14.7cm, 저경 7.7cm이다.

한편 발형토기는 「가호」출토품의 경우 흑갈색에 소성도가 낮은 것으로 깊은 평저에 동체 중간이 약간 팽창되고, 목부분이 약간 오픈리진 것으로 구순 가까이에 외반의 흔적이 있다. 승석문이 전면에 打捺되면서 그 위에 음선의 횡선대가 나선형으로 돌려져 있다. 구경 10.7cm, 높이 11.1cm, 최대경 11.7cm, 저경 8.6cm이다. 「나호」발형토기는 연질의 적갈색인데 동체 하단만 남았다. 수직의 타날문이 있으며, 저부의 지름 7.6cm, 잔존 높이 5.3cm이다. 「라호」발형토기는 적갈색의 연질토기이다. 구연부가 결실된 것으로 깊은 평저에 동체 중상단에서 최대경을 두었으며 외반되는 짧은 구연이 확인된다. 높이 8.2cm, 최대경 9.8cm, 저경 6.4cm이다. 마지막으로 「마호」출토품은 적갈색 연질인데 동체의 하단부만 남은 것이며, 저부의 지름이 6.8cm로 복원된다.

직립구연호는 4점이 제시되었는데 이중에서 「라호」출토품은 구경 9.1cm, 높이 8.7cm, 최대경 13.3cm, 저경 6.3cm의 작은 소형용기로 오히려 直立 短頸小壺로 분류될 수도 있다. 「가호」직립 구연호는 어깨 부분이 크게 퍼진 광견형 동체에 평저이다. 회청색에 경질토기로 自然油가 마치 시유한 형태로 덮여 있다. 구연은 수직이나 외부에서 보면 안으로 약간 기운 형상이고 문양은 동체하단에 타날문, 최대경 부분에 단이 있고 여기에 음선 하나로 파상문을 돌렸다. 구경 11.2cm, 높이 13.4cm, 최대경 18.3cm이다. 「나호」직립 구연호는 회청색 경질토기로, 좁은 평저에 넓은 어깨를 만들고, 직립의 구연을 낮게 올린 것이다. 하단에 타날의 선조문이 있으나 상단은 재연마로 지우고 대신에 파상문을 돌렸는데 최대경의 부분에 1조, 그리고 어깨의 중간 부분에 1조가 있다. 구경 7.6cm, 높이 11.4cm, 최대경 15.5cm, 저경 6.1cm이다. 「다호」직립 구연호도 광견호로, 회청색 경질토기로 평저에 퍼진 어깨, 직립의 짧은 구연이다. 자연유가 있다. 하단에 타날문, 최대경 부분에 가는 음선대, 어깨 중간부분에 굵은 음선대

하나가 있다. 구경 8.3cm, 높이 14.4cm, 최대경 18.8cm, 저경이 9.1cm이다.

요컨대 매납유구 출토품은 토기가 주요 구성요소이고, 기종은 병형토기 단경소호, 발형토기, 직립 구연호로 요약된다. 그러나 개별 토기는 형태나 속성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도 하다. 다만 「가호」와 「나호」, 「라호」 매납유구는 단경소호, 병형토기, 발형토기, 직립 구연호를 각 1점씩 부장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나머지 매납유구에서는 일정한 규칙성이 결여되어 있다. 한편 개별 토기에서 소형호나 발형토기는 형태분석에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나 병형토기나 직립 구연호는 형태적 특성을 갖추고 있어 대비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石室墳 遺物

31기의 석실분중에 유물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1호분, 2호분, 11호분, 20호분, 30호분, 31호분의 6기인데 유구 자체가 심하게 유실·파괴되었기에 유물 부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머지 고분들은 토기와 鐵器 아니면 棺釘이라도 수습되었는데, 이 지역 고분들에 인위적 도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유물의 잔존상은 본래의 遺物 副葬與否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출토 유물은 토기와 철기가 主種을 이루지만 17호분에서 금동제 이식이 한쌍 수습되어 이채롭다. 그리고 16호, 17호분은 부장품 외에 묘실내 한쪽에 대형 항아리 조각이 마치 屍床臺처럼 깔려 있는데 副葬土器가 깨진 것인지, 아니면 屍床臺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러 토기를 깨서 깬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더불어 16호, 17호분, 25호분 등은 큰 甕形 土器를 여러개 남기고 있는데 이것이 부장품인가, 아니면 納骨을 위한 甕인가의 판단도 필요하다. 그러나 종합적 측면에서 부장 현황은 토기라든가 철기 등의 유물을 다량으로 남긴 것과, 관정 이외에는 부장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구분된다.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부장품의 주종을 이룬 토기는 백제토기의 모든 器種이 망라되어 있는 듯하다. 器臺를 비롯하여 注口 달린 토기, 直立口緣 長頸壺이나 특수한 것, 굽달린 대접형 토기 등과 같은 특이한 기종도 있다. 더불어 부장 토기가 대체로 소형 용기로 冥器的 형태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것이 많다. 더불어 철기의 부장도 토기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무기나 도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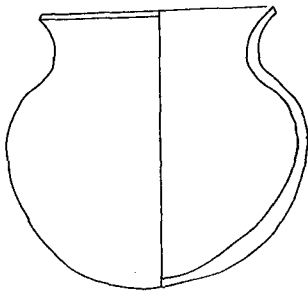
토기는 72점이 집계된다. 여기에 약간의 토기편을 고려하면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이다. 묘실 내에서 출토된 대형 甕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들이 약 10여점에 이른다. 이로 보면 토기는 80여점을 상회한다. 토기는 편의상 廣口壺, 短頸小壺, 三足土器 등의 내용으로 분류 정리하였는데 같은 형식에 포함된 것도 세부 형태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단경소호, 소형호, 소형 토기의 구분은 구연이라든가 규모에 따라 나는 것이지만 오히려 단경소호로 크게 분류하는 것이 편리할 수도 있다. 여기에 把手付土器는 파수가 부착된 것을 제외하면 용기 자체는 발형토기와

大同小異하다. 따라서 석실분 출토의 토기는 광구호와 소형호, 그리고 삼족토기, 병형토기, 개배, 발형토기, 외반 및 직립 구연호, 그리고 나머지를 기타로 분류하여 살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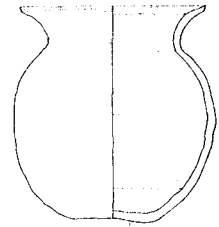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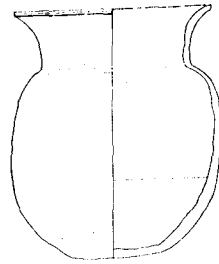
<표 3> 백제 석실분 출토유물 현황

분 류	토 기 류										철 기 류						이 식	
	광 구 호	단 경 소 호	삼 족 토 기	병 형 토 기	개 배	소 형 호	개 물	발 형 토 기	파 수 부 토 기	직 립 구 연 호	외 반 구 연 호	기 타 토 기	철 도 도	철 자	철 검 부	준 창		철 제 품
석실 3																	1	
석실 4		1		1	3						1	연결대접형토기						
석실 5		1			1													
석실 6	1				1	1												
석실 7												주변수습단경소호, 개배,삼족토기					1	○
석실 8			1								1							
석실 9																		○
석실10													1					
석실12	2	2											2	3	1	2	1	1
석실13	1						1					1	3	1	3	2		○
석실14		1									1	무문토기·토기편	2					
석실15																		○
석실16		1 주1	주1	1	주3	1	3	주1	1			대형용5						
석실17		1		1				1		1		대형용2	1	1	1			1
석실18		1	1	1									1					
석실19		1																
석실21												방추차						○
석실22																		○
석실23		2			2			1	1					1				
석실24																		○
석실25					1		1	1		1		대형용1, 방추차						
석실26																		○
석실27				1	1					1		토기편		1				
석실28		1		1	2				1									
석실29												대형용편		1				
유물수습	2	1		1	3		1		1	2	1	기대, 주구토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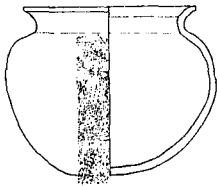
광구호는 長頸 廣口壺와 短頸 廣口壺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12호 출토 2점과 유물수습 유구 출토 2점을 들 수 있다. 12호 출토품중 하나는 원저에 약간 길쭉한 동체에 매우 큰 구연을 성형한 것이 특징인데, 구경 18.3cm에, 높이 23.2cm이고, 최대경은 19.3cm이다. 다른 한 점은 구경 17.2cm, 높이 19.9cm, 최대경 18.5cm의 크기로 구형의 동체, 그리고 큰 구연을 부착한 것이 특징으로 이들은 모두 흑청색조의 경질토기이다. 수습 유구 출토품은 회색에 소성도가 높은 경질토기로 약간 우묵하게 누른 저부와 원을 돌리듯이 곡률을 주어 올린 동체, 견부에서 급격하게 외반시키면서 견부의 상단 즉 구순에서 2cm정도 하단에 굽은 돌대를 돌린 구경 15.7cm, 높이 20.3cm, 최대경 17cm의 것과, 경질로 동체가 보다 분명한 구형을 띠면서 상단의 견부에서 직접 크게 외반시킨 구연을 지닌 구경 13.8cm, 높이 18.3cm, 최대경 17.8cm, 저경 8.2cm의 것이 있다. 단경광구호로 6호 출토품은 구형 기신에 원저의 작은 용기인데 회청색의 경질토기로 구연이 견부에서 원을 그리듯이 퍼지나, 외반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구경 12.5cm, 높이 15.2cm 규모의 토기이다. 그리고 13호 출토품은 원저 구형의 동체에, 단경의 광구를 부착한 것으로 구경 14.5cm에 높이 14.2cm이고 최대경은 17.6cm의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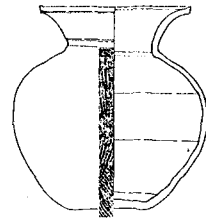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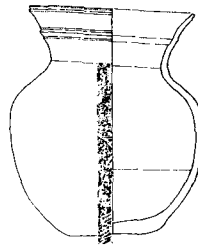
6호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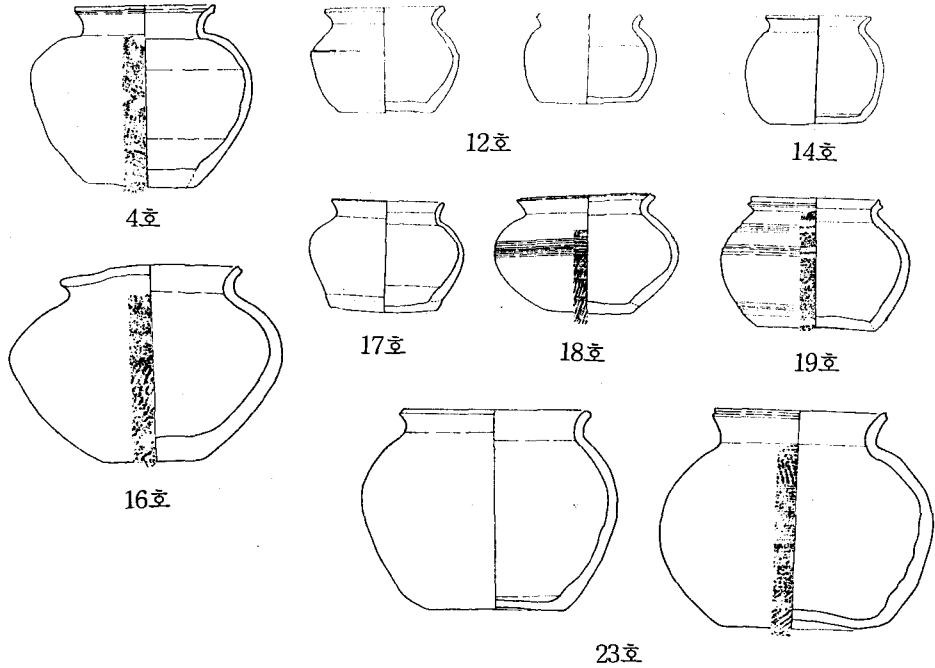


13호



유물수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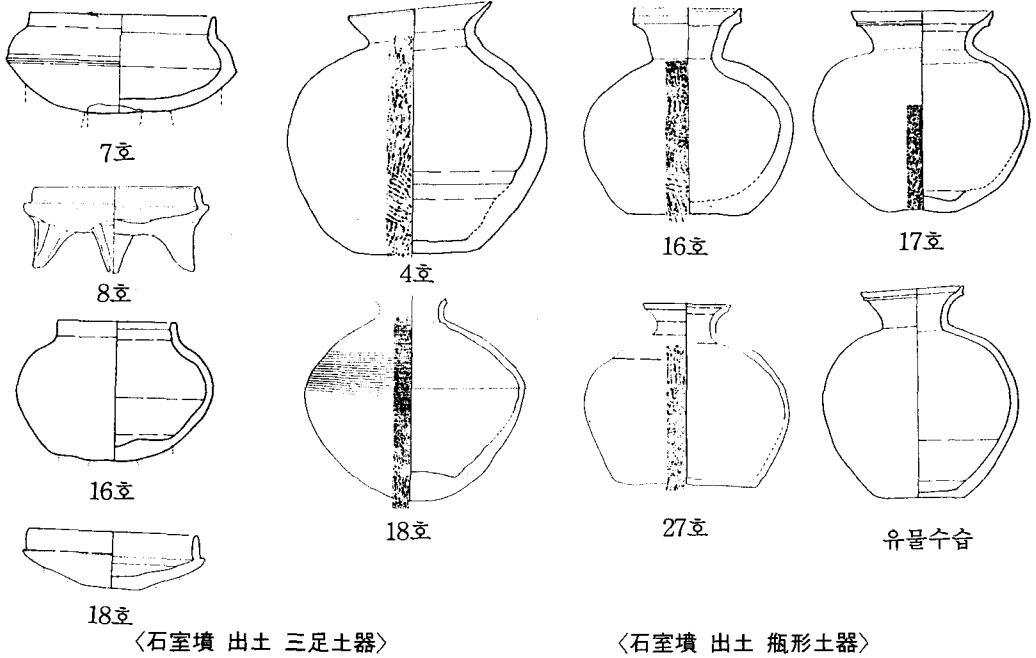
〈石室墳 出土 廣口壺〉



〈石室墳 出土 短頸小壺〉

단경소형호로 구분되는 토기는 짧은 경부에 외반구연을 지닌 것 14점, 보다 큰 외반구연을 지닌 것 2점, 그리고 짧은 직립구연을 지닌 5점 등 모두 21점이다. 이 중에서 4호분 단경소호를 보면 회흑색이나 다갈색조가 부분적으로 남은 색조에 평저에 胴體가 廣肩形인데 외반된 단경을 지닌 구경 8.6cm, 높이 11.2cm, 최대경은 13.6cm, 저경은 6.8cm의 크기이다. 그러나 단경소호로 4호 출토품은 구연의 외반정도가 감지되지만 소형호의 대부분은 구연을 밖으로 제긴채로 직선으로 올리는 것과, 구연 자체가 직립된 것으로 구분된다. 이들 소형호는 대부분 평저의 형태라는 점, 단경이라는 점외에는 매우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나아가 동체의 높이가 대체로 5-10cm의 정도로 廣口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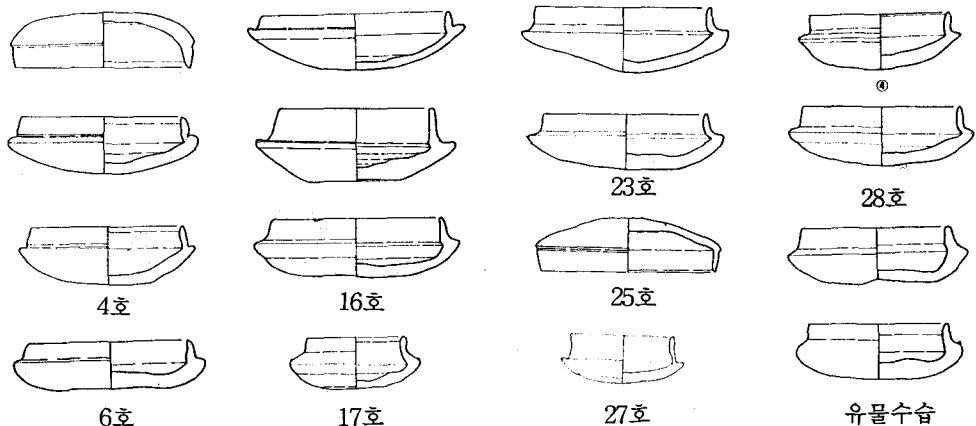
삼족토기는 3점외에 주변 수습품도 1점이 있다. 내용을 보면 8호 출토품은 저부가 깊지만 바닥은 거의 수평이고, 구연이 약간 안으로 좁혀졌으며, 받침 턱이 분명하게 남아 있다. 삼족은 별도 접합시키면서 약간 밖으로 되바라진 형상인데 2개는 대칼로 정면하여 각을 이루나 하나는 물손질로 뾰족하게 마무리한 구경 10.5cm, 높이 5.5cm의 크기이다. 그런데 16호 출토 삼족토기는 약간 異形的 형태이다. 원저에 구형의 동체, 그리고 구연을 직립으로 만든 소형의 토기 저부에 삼족을 부착한 것인데 삼족은 결실되었으며 구경 6.2cm에 현존의 높이는 7.3cm이고 동체의 최대경은 10.3cm이다. 18호 출토품은 底面에 三足を 부착하였던 흔적만 남긴 것으로 개배의 용기를 사용한 것이다.



병형토기는 소형호에 좁은 경부의 구연을 부착한 것으로 7점이 있다. 7점은 기신과 구연의 형상이 서로 다르다. 4호 출토품은 흑회색의 경질로 좁은 平底에 球形의 胴體, 그리고 좁은 경부의 구연을 올렸다. 16호 출토품도 좁은 평저에 원형의 동체, 그리고 좁은 경부의 구연을 올렸으나 구연이 크게 외반된 것으로 구경 5.6cm, 높이 10.7cm, 저경은 6cm, 최대경 10.8cm의 크기이다. 한편 18호 출토품은 앞의 것과는 사뭇 다른 형상이다. 원저에 퍼진 듯한 동체인데 뾰족한 형태의 저부에서 삼각으로 퍼지듯이 기벽을 올리면서 최대경을 동체 중간에 두고, 동체의 하단과 같은 형상으로 器身의 상단을 좁힌 후 좁은 頸部의 口緣을 올렸는데 구연부가 결실되었다. 그리고 27호 출토품은 넓은 저부에 동체가 마름모꼴의 단면을 보이며, 곧고 좁은 경부에 상단이 외반된 구연을 올렸는데 구순가까이에서는 거의 평의반으로 구경 8.5cm, 높이 15.6cm, 저경 12.1cm, 최대경 17.5cm의 크기이다. 반면에 28호 출토품은 평저에 동체가 풍만한 원형으로 저부가 동체에 비해 넓은 편으로 구경 6.6cm, 높이 14cm, 최대경 13.7cm, 저경은 8.5cm의 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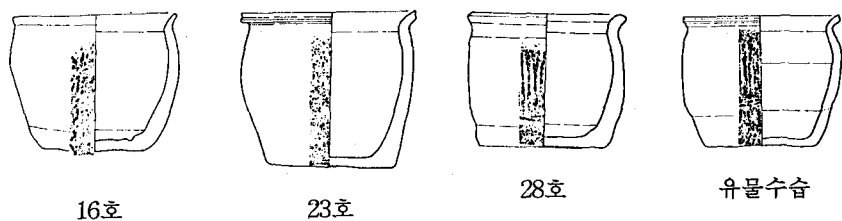
蓋杯는 백제 개배의 일반적 기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나 규모가 작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17점인데, 대체로 개부와 용기부가 분리된 채 남아 있었다. 이들은 저부의 깊이나 형태 그리고 드림새라던가 그릇 받침 턱의 너비에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예컨대 4호 출토품은 회청색 경질의 뚜껑으로, 頂部가 약간 우묵하나 거의 수평을 이루고, 받침턱

부분에서 경사를 둔 형식으로 백제 개배의 일반적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반면에 평퍼짐한 저부에서 약간의 곡률을 주어 器壁을 올리다가 받침턱 가까이에서 치켜올린 후 수평으로 접어 턱을 만들고, 내경된 구연을 높게 올린 27호 출토 개배는 구경 8.8cm, 높이 4.1cm의 소형이면서 구연이 높은 특징적인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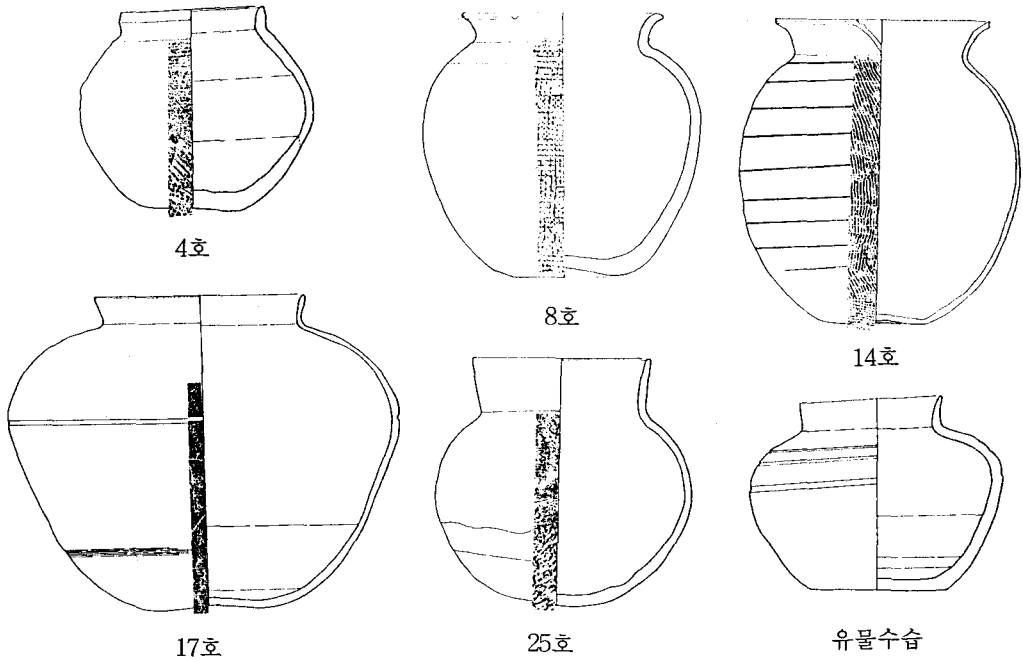


〈石室墳 出土 蓋杯〉

발형토기는 유물수습 유구에서 출토된 2점의 파수부 토기를 포함하여 6점인데, 파수부 토기는 용기는 대동소이하고, 큰 우각형 파수를 부착한 것만 다르다. 다만 용기가 발형이나 저부가 넓고, 동체가 약간 팽창된 점, 구연이 동체의 연장선에서 약간 안으로 기운 상태로 성형하였다는 차이는 있다. 이외의 발형토기는 일반적 형식에 속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 23호 출토품을 보면 적갈색의 연질로 평저인데 기벽을 직각을 이룬 형태로 올리고 동체의 중간 부분이 약간 퍼진 듯한 형상만 남겼다. 구연은 동체를 밖으로 젖힌 형태이고 구순에 깊은 음각선이 있으며, 구경 9.6cm, 높이 8.7cm, 저경 6.9cm의 규모이다.



〈石室墳 出土 鉢形土器〉



〈石室墳 出土 壺形 土器類〉

직립 및 외반 구연호는 일반 호형 토기들이다. 직립호 5점과 외반구연호 3점 등 8점으로 용기의 높이가 20cm내외의 것들인데 물론 작은 것도 있다. 직립 구연호는 17호 출토품의 경우 눌러 우묵한 원저에, 퍼진 듯한 광견형의 동체, 약간 외반된 직립구연을 지닌 경질토기로 구경 16.4cm에, 높이 24.4cm이고 최대경은 30.5cm의 크기인데 백제 직립 구연호의 구연이 대체로 안으로 약간 내경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25호 직립 구연호는 구연이 매우 크게 만든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는 직립구연 장경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저에 구형의 동체를 지닌 경질토기로 구연은 동체의 상단에서 장경으로 약간 밖으로 기운 채 직립으로 높게 올린 것이며, 구경 12cm, 높이 16.9cm, 최대경 17.5cm의 크기이다.

한편 외반구연호는 14호 출토품의 경우 회백색 연질로 장란형의 기형에, 구연은 광구로 분류된다. 구연은 동체에서 직접 외반된 형태로 경부 형상이 있으나 구순 가까이에서 거의 평외반되어 있는 구경 22cm, 높이 31.3cm, 최대경 28.7cm의 크기이다. 그리고 8호 출토품은 원저를 눌러 평저의 형상을 만든 회흑색로 경질로 구형의 동체에 짧은 광구의 구연을 부착한 구경 12.8cm, 높이 16.5cm, 최대경 17.8cm의 크기이다.

요컨대 석실분 출토유물은 묘제별 유물의 부장 여부가 확연하게 구분된다. 그리고 부장품은 토기와 철기가 중심을 이루는데 토기는 多種多様な 기종을 보이거나 대체로 日常容器가

부장되었으며 樣式的 劃一性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의 기종을 제외하면 백제토기의 일반적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많다. 장경 광구호나 병형토기, 삼족토기, 개배, 발형토기는 부장품으로 보편성을 지닌 것이다.

3. 埋納遺構의 性格

매납유구 자체만으로 성격을 구체화할 수 없어 비교 검토를 위하여 출토품을 토기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그리고 석실분 출토 토기도 검토한 결과 매납유구 출토 토기는 기종에서 광구호, 단경소호, 병형토기, 발형토기 그리고 직립 구연호라는 비교적 단순한 기종 구성을 보인 반면에 석실분 토기는 기종에서 다양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서 기종의 有無 問題와 동일 기종이라도 形態的 屬性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다.

매납유구의 토기는 기종이 비교적 단순한 반면에 석실분 토기는 기종이 매우 다양하다. 석실분 출토품에는 백제 분묘 부장품으로 普遍性이 있는 개배나 삼족토기가 있지만 매납유구에서는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석실분에서는 장경 광구호라든가 기대나 주구 달린 토기 등의 특수한 기형이 석실분에 부장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이와 같은 토기 종류의 부장 여부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갑자기 단언하긴 어렵다.⁹⁾ 석실분 자료는 숫적으로 풍부한 반면에 매납유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양적 비교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차이는 두 유구가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굳이 외면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를 고려하면서 여기에서는 비교가 가능한 매납유구 출토품을 중심으로 살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매납유구 출토품으로 소형호나 발형토기는 석실분에서도 출토 빈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비교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에도 토기의 특성상 다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광구호는 출토가 적으면서 마땅히 비교 대상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앞서 보았듯이 석실분에서 단경소호는 다른 기종에 비해 숫적으로 매우 많다. 하지만 이 단경소호는 언뜻 외형적 형상이 단순한 듯 보이지만, 형태적 복잡성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때문에 이 단경소호는 속성에 근거한 型式 分類라든가 系列化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발형토기도 4예의 매납유구에서 출토되어 보편성을 보이고, 석실분에서 7점이 출토되어 양 유구에서 보편성이 함께 인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발형토기는 단경소호와와는 반대로 형태의 단순성으로 말미암아 속성 차에 고찰이 매우 어려운 토기이다. 광구호의 경우 매납유구 출토품 2점이 있고, 석실분에서도 6점이 있지만, 매납유구 출토품과 석실분 출토품으로 상호 정

9) 器臺나 長頸廣口壺는 대체로 鑿穴式 石室墳에서 專用的으로 부장되는 토기이다. 그럼에도 기대의 경우 유물수습유구가 황혈식 석실분으로 복원될 수 있어 이채를 띤다.

확하게 대비할 수 있는 요소의 발견이 어렵다. 따라서 상호 비교될 수 있는 자료는 병형토기, 직립 구연호만 남게 된다.

병형토기는 백제 석실분 출토품으로는 비교적 보편성을 지닌 것이다.¹⁰⁾ 특히 병형토기는 횡혈식 석실분의 전용적 부장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정될 만큼 자주 출토된다. 그리고 횡혈식 석실분에서 이 병형토기의 출토는 초기 형식에서 말기 형식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公州 宋山里 궁륭식 석실분의 출토 예는¹¹⁾ 초기형에 속하는 것이고, 論山 六谷里 石室墳에서 출토된 병형토기는¹²⁾ 후기 혹은 말기의 백제 횡혈식 석실분 출토품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반면에 같은 백제고분으로서 토광묘라던가 혹은 수혈식 석실분과 같은 토착묘제에서는 아직 그 事例의 발견이 어려워 고분 부장품으로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병형토기는 既往의 횡혈식 석실분 출토 자료를 예로 볼 경우 고분의 발전 형태에 따라서 다른 속성을 지닌 것이 출토된다. 즉 고분의 형식 변화라는 시간의 흐름과 짝하여 병형토기도 나름의 형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주 송산리 궁륭식 석실분 출토품과 논산 육곡리 평천정 유형의 횡혈식 석실분 출토품을 대비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전자인 초기 형식은 병형토기 용기가 球形에 가까우면서 低部가 좁은 평저가 많으며, 나아가 구연을 長頸口緣으로 크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후자는 용기의 동체 형태가 구형보다는 肩部가 크게 팽창되면서 단면 마름모꼴에 가깝게 만들고 나아가 口緣도 이전 시기의 것보다는 작아진다는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데 병형토기의 이러한 속성 차이는 분강·저석리의 매납유구 출토품과 석실분 출토품에 그대로 드러난다. 우선 매납유구 가호 병형토기나 나호 병형토기는 평저에, 동체에 곡률이 거의 없이 곧으면서 어깨 부분이 크게 퍼진 형상으로 남아 있어 병형토기의 기형에서 후기 형식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석실분 출토품은 대부분 구형의 동체에 좁은 평저 혹은 원저에 가까운 기형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구연이 보다 장경광구의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 많아 대체로 초기형에 속한다는 공통성이 있다.¹³⁾

결국 병형토기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매납유구 출토품을 석실분 출토품과 대비할 경우 병형토기라는 기종적 측면은 상통하나 기형에서 나름의 차이가 있는 바, 이를 기왕의 병형토기 사례에 비추어 보면 석실분 출토의 병형토기가 매납유구의 병형토기보다 선행 형식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직립 구연호의 문제이다. 석실분 출토품에서도 직립 구연호로 구분된 것이 있으나

10) 李南奭, 1995. 『앞 책』 (주 2).

11) 野守建 外, 1927. 『宋山里 古墳』 『昭和二年度古蹟調査報告』 (朝鮮總督府).

12) 安承周·李南奭, 1988. 『論山 六谷里百濟古墳調査報告書』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3) 다만 石室墳 출토품중에 27호 출토품은 오히려 埋納遺構 출토품과 대동소이한데 石室墳 상단이 대부분 유실되어 유구 성격이 불분명하여 석실분의 축조 시기를 판단하기 어렵다.

매납유구 출토품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다. 나아가 석실분 출토 직립 구연호는 통일성이 없는데 반하여 매납유구 출토의 직립 구연호는 형식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매납유구 직립 구연호는 평저에 퍼진 듯한 동체를 외반하여 올리다가 소위 廣肩形의 넓은 어깨를 둔 후에 급격하게 좁힌 다음 짧은 직립의 구연을 살짝 내경시켜 올리는 특징이 그것이다. 여기에 어깨 부분에 파상문이라던가 돌대형식의 횡선대를 돌린다는 점도 대동소이한데 이러한 유형이 석실분에서 발견된 사례는 27호 출토품이 유일한 예이다. 물론 27호분은 병형토기도 매납유구와 공통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이로 보면 27호 부장품은 매납유구와 시간적 상관이 있지 않은가라는 추정과 함께 적어도 토기를 부장한 석실분이 조성되는 환경에서 이 직립 구연호가 사용되지 않았든가, 아니면 적어도 부장품으로 활용되지 않았다는 전제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런데 석실분 출토 토기 기종을 살필 경우, 앞의 유물 검토 결과에 의하면 석실분예의 토기 부장은 모든 기종이 망라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더불어 壺類의 부장도 다종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광구호로 분류된 것을 비롯하여 백제 壺類의 대부분이 부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백제 분묘에 壺形 土器의 부장은 보편적이며, 발견 예도 가장 많은 기종이기도 하다. 다만 이 호형토기는 器型에 따라 선후가 구분되는데 대체로 원저의 광구형은 초기형 고분에 집중되고 있으며, 후기형의 고분에서는 평저가 보편화되면서 구연에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분강·저석리 고분군의 석실분에서 매납유구에서 출토된 직립 구연호와 동일한 형태의 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것은 묘제의 시기 차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평천정 유형의 횡혈식 석실분에서 직립구연의 광견형 호가 자주 출토되는 점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토기 비교 결과에 의하면 병형토기는 같은 기형이면서도 석실분 출토품은 이른 시기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매납유구는 늦은 시기의 것만 출토되고, 직립 구연호는 매납유구와 동일 기형이 석실분에서 출토되지 않는 것은 매납유구 직립 구연호와 같은 기형의 토기가 사용되는 시기에 분묘의 매장품으로 이것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국 직립 구연호의 존재는 병형토기와 함께 매납유구의 성격 이해의 전제로 다음과 같은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 즉 매납유구는 적어도 토기류가 부장된 석실분보다 늦게 조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납유구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분명히 이 매납유구는 석실분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어느 고분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앞서 살핀 석실분 출토유물을 종합하여 보면 부장품의 존재 여하가 관정의 출토여부와 그리고 묘제에 따라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관정을 기준으로 볼 때 관정이나 관고리 등이 수습될 경우 토기의 부장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반면에 부장품이 있는 경우 관정이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면서 이들은 묘제 형식에 따라 다시 구분할 수 있다.

분강·저석리 고분군은 대체로 백제 석실분이 수혈식, 횡혈식, 횡구식이 함께 남아 있다. 그런데 주지되듯이 백제 석실분 묘제에서 횡혈식과 수혈식은 서로 배경을 달리하는 묘제이다. 수혈식은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토착 묘제로 사용되던 것이고, 횡혈식 석실분은 서북 지역에서 유입된 것이다. 나아가 금강 유역에서 횡혈식 석실분의 사용은 백제 사회에서 이것이 도입된 5세기대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분강·저석리의 墳墓 造營人들은 초기에 수혈식 석실분을 사용하다가 점차 횡혈식 석실분을 수용, 주요제로의 전환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횡구식이 부수적으로 발생 사용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횡혈식 석실분은 구조에서 다양한 형식차가 인정된다. 12-14호분은 특이 구조인데 외형상 궁륭식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면서 연도라던가 묘실 바닥의 처리 목관의 미사용 등의 내용으로 보면 始原的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이 지역에 횡혈식 묘제가 처음 채용되면서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근의 공주 지역에 정형적 횡혈식 석실분으로 궁륭식 석실분보다 이른 시기의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16, 17호 석실분은 묘실의 평면, 입구 및 연도, 천정의 가구 방식 등의 일반적 형상은 정형적 궁륭식 석실분과 상통하나, 연도가 좌편재라든가, 목관의 미사용은 아직 궁륭식 석실분의 미숙성을 내포하면서 부분적으로 12-14호 석실분과 속성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계기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21호분과 같이 묘실이 장방형화 되었으면서도 아직 원형천정의 흔적을 남긴 것도 있다.

반면에 횡혈식 석실분으로 24호분은 비록 규모가 작고, 사용 재료가 粗惡하지만 평천정 유형의 기본적 형상을 갖추고 있다. 중앙 연도에 현문식 입구, 그리고 세장된 장방형의 묘실은 판석재 형태의 괴석을 세워서 축조하고 있는데, 백제 횡혈식 석실분으로서는 가장 늦은 형식으로 대체로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즉 7세기대에 가장 보편적 묘제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분강·저석리의 석실분은 횡혈식 석실분의 시원형에서 말기형까지 포함되어 있으면서 수혈식 석실분이라든가 시원형을 비롯한 초기형의 횡혈식 석실분에서는 토기, 철기 등의 부장품이 풍부한 반면에 棺釘은 발견되지 않고, 반면에 보다 늦은 시기의 묘제인 평천정 유형의 횡혈식 석실분이나 횡구식 석실분에서는 棺釘만이 수습된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즉 석실분의 부장품 잔존 여부는 축조시기가 이른 것은 목관의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면서 토기나 철기류를 풍부하게 부장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造營된 석실분은 목관을 사용하면서 물품을 부장하는 환경은 지양되었다는 것이다.

매납유구와 관련하면 매납유구의 유물이 통용되던 시기는 백제고분으로 수혈식 석실분보다는 횡혈식 석실분이, 그 중에서도 평천정 유형의 횡혈식 석실분이나 횡구식 석실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들 고분은 유물이 전혀 부장되지 않고, 목관에 시신을 넣어 이것만 안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매납유구가 조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 매납유구는 묘실내에 유물을 전혀 남기지 않은 횡혈식 석실분의 造營 環境 즉 葬制와 관련이 있

다고 판단된다. 묘실내에 유물을 넣는 대신에 고분과 가까운 지역 즉 고분보다 높게 자리한 정상부 지역에서 어떤 儀式을 행하면서 이들 매납유구를 남긴 것이 아닌가 추정되는 것이다.

요컨대 매납유구 유물은 토기중에서 병형토기와 직립 구연호를 석실분 출토의 토기와 대비하면 이들은 석실분 출토 토기보다 後行的 型式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분강·저석리의 석실분은 이른 시기의 묘제인 수혈식 석실분이나 횡혈식 석실분 중에서도 원형천정 혹은 조임식 천정의 분묘에서는 토기나 철기와 같은 유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부장되지만 목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후기의 평천정 유형의 횡혈식 석실분이라던가 횡구식 석실분은 부장품이 전혀 없고 단지 관정만 남아 목관을 사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매납유구 출토 토기는 대체로 이들 후기 형식인 평천정 유형의 석실분 출토품과 밀접한 相似性이 있음에 비추어 매납유구는 이들 후기 형식의 고분이 조영되던 시기에 남겨진 것이고, 분묘 조성시에 묘실내에 유물의 안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묘실 밖의 墳墓地域 정상부쪽에서 儀式의 결과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結 言

분강·저석리 고분군이라는 다소 복합적 성격을 지닌 墳墓遺蹟에서 발견된 매납유구의 성격에 대해 출토 토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매납유구는 별도의 유구가 없고, 단지 토기만 남긴 것으로, 이것이 고분군내에 남아 있는 점을 근거로, 함께 조사된 고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推定에서 고찰을 진행하였다. 고분군의 내용은 무문토기시대 석관묘를 비롯하여 원삼국기 토광묘, 백제의 석실분을 비롯하여 옹관묘 등의 모든 묘제가 망라되어 있지만 시대별 계기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백제시대의 묘제는 장구한 기간에 걸쳐 조영되면서 옹관묘 등의 부수적 묘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매납유구는 6기를 확인하였지만 유물만 묻힌 형태로 있기에 표면 유실을 고려하면 보다 많은 숫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토기 등의 물품은 지하에 묻은 형상으로 남아 있다. 埋納品은 토기가 중심을 이루지만, 鐵斧나 鐵鎌과 같은 鐵製品과 방추차도 있다. 때문에 유물만으로 보면 토광묘와 같은 매장시설의 잔존품으로 볼 수도 있으나 토광묘는 아니다. 나아가 잔존유물로 미루어 화장묘의 추정도 가능하나 토기의 기종과 형태에서 어려움이 있는 유구이다.

매납유구의 출토품은 토기가 주종인데, 기종은 瓶型土器 短頸小壺, 鉢型土器, 直立 口緣壺로 요약된다. 그리고 형태나 속성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 규칙성은 있다. 즉 매납유구는 단경소호, 병형토기, 발형토기, 직립 구연호를 표식적으로 부장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며 토기 속성은 백제토기의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편 매납유구 유물 검토를 위해 석실분 출토 토기를 살펴 보았는데 석실분은 묘제별 유물의 부장 여부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부장품은 토기와 철기가 중심을 이룬다. 토기는 기종의 다양성이 돋보이나 이들도 대체로 日常容器라는 공통성과 함께 백제토기로서 장경 광구호나 병형토기, 삼족토기, 개배, 발형토기와 같은 보편성을 지닌 것이 많다.

매납유구 출토 토기자료중에 병형토기와 직립 구연호를 석실분 출토의 토기와 대비하면 이들은 석실분 출토 토기보다 後行의 型式임이 파악되면서, 분강·저석리의 석실분은 이른 시기의 묘제에서 토기나 철기와 같은 유물이 부장되지만, 목관은 없고, 반면에 후기 묘제에서는 부장품은 전혀 없고 단지 목관의 흔적만 발견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매납유구 출토 토기는 대체로 이들 후기 묘제인 평천정 유형의 석실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납유구는 분강·저석리의 백제 석실분중에서 후기 형식인 평천정 유형의 횡혈식 석실분이나 횡구식 석실분이 조영되던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墳墓地域 정상부쪽에서 葬制와 관련된 어떤 儀式이 행해지고 그 흔적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